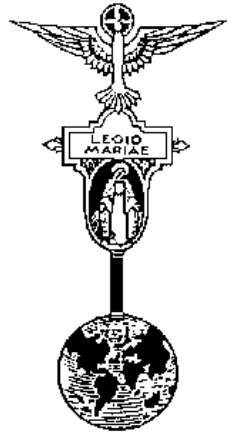


레지오 마리아



제15차 종합 보고서

보고일 : 2015. 7. 5 (일)

담당사제 : 백남국 (사도요한)

마산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 소속

창원 제6(성조들의 모후) 꼬미시움

차 례

● 연혁	1
● 종합보고	5
1. 설립일자	5
2. 보고기간	5
3. 회합일시	5
4. 회합장소	5
5. 조직현황	5
6. 운영 및 관리 현황	6
7. 회계보고	6
8. 행사	7
9. 교육	7
10. 피정 실시 사항	7
11. 활동상황	8
12. 평가 및 향후 계획	9
13. 활동사례	10
14. 조직현황 간부 명단, 직속 Pr. 현황	26
● 부록	28
부록 1. 2015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순방 계획	29
부록 2. 2015년도 주일 미사 안내 계획	33

연 혁

1999. 08. 15 대방동성당 신설과 함께
창원 평화의 모후 꼬미씨움 지시로 설립 계획 수립
1999. 11. 06 꾸리아 (성조들의 모후 Cu.) 설립
담당사제 : 허성학 (아브라함) 신부
단장 : 박성률 (이시도로) 부단장 : 정선례 (루시아)
서기 : 최삼용 (베드로) 회계 : 조갑윤 (베로니카)

Pr. 수	행동단원	협조단원	평 의 회
13	110	64	매월 셋째 주 금요일(19:30)

1999. 11. 20 창단식 및 제1차 평의회 (가음동 성당 지하강당)
2000. 01. 27 제2대 담당사제 부임 (노영환 마티아 신부)
03. 09 평화의 모후 Pr. 설립 (단장 : 윤명원 베드로)
03. 11 하늘의 문 Pr. 설립<소년> (단장 : 조갑윤 베로니카)
03. 11 새벽 Pr. 설립 <소년> (단장 : 신희철 안드레아)
06. 08 애덕의 모후Pr. 설립 (단장 : 홍찬수 바오로)
06. 09 천상의 어머니 Pr. 설립 (단장 : 조갑윤 베로니카)
07. 14 제2대 서기 선출 (홍찬수 바오로)
08. 24 초대 지도수녀 부임 (장 레오니아 수녀)
09. 14 사도들의 모후 Pr. 설립 (단장 : 이응준 요한)
10. 31 존경하울 그릇 Pr. 설립 (단장 : 이태섭 요셉)
11. 01 매괴의 여왕 Pr. 설립 (단장 : 조갑윤 베로니카)
11. 03 가정의 모후Pr. 설립 (단장 : 구정례 글라라)
11. 03 사랑하울 어머니 Pr. 설립 (단장 : 정선례 루시아)
11. 07 인자하신 모후 Pr. 설립 (단장 : 최창수 요한)
2001. 02. 16 제3대 서기 선출 (함일배 비오)
2001. 03. 10 제1차 평의회 종합보고
2001. 04. 18 신비로운 장미 Pr. 설립 (단장 이화숙 효주아녜스)
2001. 05. 30 대방 제2(사도들의 모후) 꾸리아 설립 (승인 : 2001. 6. 2)
단장 : 김완수 (토마스 아퀴나스)
10. 17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설립 (단장 : 박화연 마리아)
10. 26 겸손하신 모후 Pr. 설립 (단장 : 노은호 세라피아)
12. 06 상아탑 Pr. 설립 (단장 : 이태경 레오)

2002. 02. 15 제2대 회계 선출 (노은호 세라피나)
 2002. 02. 21 황금궁전 Pr. 설립 (단장 : 최화수 마르치아노)
 2002. 03. 09 제2차 평의회 종합보고
 2002. 04. 15 제4대 서기 선출 (신희철 안드레아)
 09. 13 제2대 단장 선출 (윤명원 베드로)
 10. 18 제2대 부단장 선출 (황희순 데레사)
 2003. 01. 22 제3대 담당사제 부임 (조명래 안드레아)
 2003. 03. 08 제3차 평의회 종합보고
 06. 12 구세주의 어머니 Pr. 설립 (단장 : 정선례 루시아)
 07. 08 중재자의 모후 Pr. 설립 (단장 : 김환식 안셀모)
 10. 12 제3(순교자들의 모후) 꾸리아 설립 (승인:11.8, 단장: 김영수(스테파노))
 2004. 03. 07 꼬미씨움 설립 / 인가 및 평의회 간부 인준 (마산 레지아)
 담당사제 : 조명래 (안드레아) 신부
 단장 : 윤명원 (베드로) 부단장 : 황희순 (데레사)
 서기 : 신희철 (안드레아) 회계 : 노은호 (세라피나)
 2004. 03. 12 제4차 평의회 종합보고
 04. 02 창원 제6 꼬미씨움 창단식
 06. 13 레지오 단원교육 (강사 : 마산 레지아 박성률 이시도로 교육위원)
 2004. 08. 22 제2대 지도수녀 부임 (김 아미까 수녀)
 2005. 04. 08 제3대 회계 선출 (김정애 임마꼴라따)
 2005. 05. 06 제5대 서기 선출 (김환식 안셀모)
 2005. 07. 03 제5차 평의회 종합보고 (2개 Cu., 행동단원 322명, 협조단원 185명)
 2005. 09. 09 제3대 단장 선출 (천행길 사도요한)
 2005. 10. 02 제3대 부단장 선출 (김정애 임마꼴라따)
 2005. 11. 11 제4대 회계 선출 (박미화 바실라)
 2005. 12. 07 무염시대 Pr. 설립<청년> (단장 : 김혜정 크리스티나)
 2005. 12. 11 연차 총 친목회 (전주치명자산)
 2005. 12. 07 레지오 단원 교육 (강사 : 꼬미씨움 단장 천행길 사도요한)
 2006. 03. 12 아치에스 봉헌사열식
 2006. 05. 09 레지오 간부 및 단원 교육 (강사 : 마산레지아 안상덕 다니엘 단장)
 2006. 05. 30 교구설정 40주년 합동 성모의 밤 (창원 실내체육관, 320명 참석 일반신자 포함)
 2006. 07. 02 제6차 종합 보고 (2개 Cu., 행동단원 284명, 협조단원 189명)
 2006. 11. 10 진례(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꾸리아 전입 (창원 제4 꼬미씨움)
 (단장 : 이상원 마르코 Pr.수 : 5개 행동단원 : 25명)
 2006. 11. 14 제5대 회계 선출 (박화연 마리아)
 2006. 11. 14 간부 직책교육 (강사 : 마산레지아 손재곤 요아킴 교육위원)

2007. 01. 12 제4대 담당사제 부임 (권창현 요셉 신부)
 제4대 단장 선출 (박성률 이시도로), 제6대 서기 선출 (정문연 요한)
 2007. 03. 23 셋별 Pr. 설립 (단장 : 황희순 데레사)
 2007. 05. 11 제4대 부단장 선출 (권정숙 요안나)
 2007. 05. 20 레지오의 날 행사 (창원 대암고등학교 실내체육관)
 2007. 07. 01 제7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10명, 협조단원 268명)
 2008. 04. 11 제7대 서기 선출 (원희상 안드레아)
 2008. 07. 06 제8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28명, 협조단원 239명)
 2008. 07. 28 기쁨의 샘 Pr. 설립 (단장 : 신희철 안드레아)
 2008. 11. 16 연차 총 친목회(대암고등학교 실내체육관)
 2009. 02. 28 선교특별연수(2/28~3/1) 성산종합복지관 (84명참석)
 2009. 07. 05 제9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45명, 협조단원 292명)
 2009. 08. 07 제5대 부단장 선출(최하백 도미니카)
 2009. 09. 30 각 평의회 조직 재구성(Co.1, Cu.3, Pr.43)
 꼬미씨움 직속: Cu.3, Pr.10, 제1Cu. 14Pr., 제2Cu., 14Pr., 진례 Cu. 5Pr.
 2009. 11. 06 제6대 회계 선출(박규리 마리아)
 2009. 12. 06 연차 총 친목회(대방성당 지하 강당)
 2010. 01. 08 제5대 단장 선출(신희철 안드레아)
 2010. 07. 04 제10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43명, 협조단원 281명)
 2010. 12. 05 연차 총 친목회(안남중학교 체육관)
 2011. 01. 07 제5대 담당사제 부임 (이성렬 요셉 신부)
 2011. 05. 06 제8대 서기 선출 (김정규 사비노)
 2011. 07. 03 제11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37명, 협조단원 299명)
 2011. 12. 11 연차 총 친목회(대방중학교 체육관)
 2012. 06. 17 연차 총 친목회(안남중학교 체육관)
 2012. 07. 01 제12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36명, 협조단원 296명)
 2013. 01. 31 지도수녀 부임(황 젤마나)
 2013. 01. 03 제6대 단장 임종선 요셉, 제6대 부단장 권정숙 요안나,
 제7대 회계 서은기 요안나 선출
 2013. 03. 17 아치에스 봉헌사열식
 2013. 06. 06 연차 총 친목회(삼량진 김범우 묘소)
 2013. 07. 07 제13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17명, 협조단원 300명)
 2014. 01. 03 제6대 담당사제 백남국 (사도요한) 부임
 2014. 03. 07 천주의 성모 Pr. 해체 (직속)
 2014. 03. 16 아치에스 봉헌사열식(대방동성당)
 2014. 03. 23 아치에스 봉헌사열식(진례성당)

2014. 6. 20 하늘의 문 Pr. 해체(매괴의 여왕 Pr. 통합, 제1(사도들의 모후) Cu.)
2014. 07. 11 제14차 종합보고 (3개 Cu., 행동단원 309명, 협조단원 242명)
2014. 07. 14 제9대 서기 도철훈 라파엘메토디오 선출
2014. 08. 03 상지의 옥좌 Pr. 전입 (제1(사도들의 모후) Cu.)
2014. 08. 31 무염시대 Pr. 해체 (직속)
2014. 09. 20 2014년도 연차 총 친목회 (마산교구 순교복자 5위 탄생 경축대회-용지공원)
2015. 03. 16 2015년도 아치에스 봉헌사열식 (대방동 성당)
2015. 03. 23 2015년도 아치에스 봉헌사열식 (진례 성당)
2015. 07. 10 제15차 종합 보고 (3개 Cu., 행동단원 305명, 협조단원 223명)

창원 제6(성조들의 모후) 꼬미씨움 평의회 제15차 종합보고서

1. 승 인 일 : 1999년 11월 6일 (꼬미씨움 승격일 : 2004년 3월 7일)
2. 보고기간 : 2014 년 1 월 (171 차) ~ 2014 년 12 월 (182 차) 12 차분
3. 회합일시 : 매월 첫째 주 금요일 20시 10분
4. 회합장소 : 천주교 마산교구 대방동 성당 지하 강당
5. 조직 현황

가. 간부 구성

구분 \ 직책	담당사제	단 장	부 단 장	서 기	회 계
성 명	백남국	임종선	권정숙	도칠훈	서은기
세 레 명	사도요한	요셉	요안나	라파엘메토디오	요안나
상급 평의회 출석률	-	75%	83%	67%	83%

나. 조직 구성 현황

구분 \ 단원 수		설립시			전차보고서			현재			증감		
평의회 및 Pr.	성인	0			1			1			0		
	소년	0			0			0			0		
Cu.수	성인	1			3			3			0		
	소년	0			0			0			0		
Pr.수	성인	13			43			40			-3		
	소년	0			0			0			0		
성 인 행 동 단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7	83	110	101	208	309	108	197	305	7	-11	-4
소 년 행 동 단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0	10	10									
쁘레또리움 단원		0			2			2			0		
협 조 단 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7	47	64	42	200	242	34	189	223	-8	-11	-19
아듀또리움 단원		0			2			1			-1		

다. 간부 이동 : 서기 선임 - 도칠훈 (라파엘메토디오)

라. 신설 Pr. Cu. Co. 승인 : 죄인들의 피난처 Pr. (진례 Cu. 남성, 6명,)

마. 변동 Pr. : 해체 - 무염시대 Pr.(직) 천주의 성모 Pr.(직)하늘의 문(1Cu.) 계약의 레(2Cu.)

6. 운영 및 관리 현황

가) 출석률 : 간부 95.7 %, 평의원 82.2 %, 전체 83.3 %

나) 통신 교환 : 수신 229 건 발신 37 건

다) 순방 : 12 회

○ 꾸리아 순방 3 회 / 3 개 꾸리아

○ 뽀레시디움 순방 9 회 / 직속 9 개 뽀레시디움

라) 기타 :

7. 회계 보고

수 입				지 출			
적 요			금 액	적 요		금 액	
전년도이월금			907,834	의	레지아 의연금	2,400,000	
의 연금	꾸 리 아	대방 1꾸리아	6,200,000	교 육 비 및 회 의 비	소 계	2,400,000	
		대방 2꾸리아	5,400,000		평의회.Pr. 단장 피정	2,676,540	
		진례꾸리아	600,000		레지오 단원 교육	1,656,740	
		소 계	12,200,000		간부간담회	442,670	
	직 속 뽀 레 시 디 움	천사들의 모후	629,000		레지오 마리아 월보	1,296,000	
		천주의 성모	46,000				
		즐거움의 샘	624,700				
		소 계			소 계	6,071,950	
		평화의 모후	571,000		행 사 비	아치에스	727,600
		상아탑	207,000			연차총친목회	2,625,000
		황금궁전	680,000	순교복자경축행사비		50,000	
		중재자의 모후	197,000	성모의 밤		50,000	
		셋별	377,100	소 계	3,452,600		
		기쁨의 샘	616,000	활 동 비	39사단군중지원비	600,000	
		상지의 옥좌	575,000		교통비	470,000	
	소 계	4,522,800	소 계		1,070,000		
	관 리 및 운 영 비	수입 이자	2,013		레지오 꽃 대금	597,500	
				복사.인쇄.제본.	420,000		
				제대비품초구입	115,000		
				서식대	807,000		
				특수Pr. 방문	205,110		
				선교비	150,000		
				Pr.순방비,격려금	470,000		
				평의회 준비비	418,970		
				주회실 Pr.서류함,좌탁	780,000		
			소모품 구입비	26,980			
기타 수입			소 계	3,990,560			
			지출 합계		16,985,110		
수 입 계			17,632,647	이월금 잔액		647,537	
총 계			17,632,647	총 계		17,632,647	

8. 행사

구분	행사 명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 인원	내 용
레지오 행사	아치에스	2014. 3. 16	대방동 성당	전 단원	231 명	
		2014. 3. 23	진례 성당	전 단원		
	연차 총 친목회	2014. 9. 20	용지문화공원	전 단원	183 명	마산교구 순교복자 5위 탄생 경축대회, 진례(16)
	야외 행사	2014. 7~8월	Pr.별 개최	전 단원	245 명	Pr.별 야외 행사, 진례(23)
기타 행사	성모의 밤	2014. 5. 30	대방동 성당	전 단원	194 명	대방동 성당, 진례성당
	순교자묘지미사	2014.10. 12	순교자 묘지	전신자	21 명	진례 성당
	본당의 날	2014.10. 19	대암초등학교	전 단원	145 명	대방동 성당

9. 교육

가. 상급평의회 주관교육(레지아 주관)

횟수	교육 명칭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 인원	내 용
1	평의회 단장 피정	2014.1.18~19	트라피스트수녀원	Co. 단장	1 명	
2	단원 소양 교육	2014. 4.27	성심원	레지오단원	12명	
3	Cu. 단장 워크숍	2014.5.24~25	가톨릭교육관	평의회 단장	2 명	
4	평의회 간부 수련회	2014.8.30~31	벽계야영장	평의회 간부	2 명	
5	Co. 단장 피정	2014.9.20~21	엠마오의집	Co. 단장	1 명	
6	평의회 4간부 교육	2014,10,26	교구청	평의회 간부	12명	
7	레지아 활동계획 발표회	2014.11.29~30	가톨릭교육관	평의회 간부	10 명	

나. 평의회 자체교육(꼬미씨움 주관)

횟수	교육 명칭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 인원	내 용
1	Pr. 단장 간담회	2014. 2. 16	대방동 성당	Pr. 단장	36 명	Pr. 활성화 토론
2	시순 특강	2014. 3. 25	대방동 성당	전 단원	151 명	-
3	Pr. 간부 교육	2014. 8. 24	대방동 성당	Pr. 간부	94 명	Pr. 간부 직책 교육
4	레지오 단원 교육	2014. 9. 24 2014. 11. 9	대방동 성당	전 단원	194 명	주회합 관련 교육

10. 피정 실시 사항: 꼬미씨움 주관

횟수	피정 명칭	일 시	장 소	대 상	참가 인원	내 용
1	Pr. 단장 피정	2014. 11. 22	부산 분도 명상의 집	Pr. 단장	34 명	교육 및 명상 피정
2						
3						

11. 활동상황 아래의 활동세목은 활동의 대표적인 예이오니 이외의 실시한 교유의 다른 활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목	세목	활동 횟수	내용	결과
기 도 활 동	평일미사	20,742	회	
	목주기도	469,003	단	
	십자가의 길	498	(일부 집계)	
	성경 읽기, 쓰기	12,160	시간, 읽기(4,761 시간) / 쓰기(5,520 시간)	
	소성무일도	377	(일부 집계)	
	시성시복 청원기도	287	순교자(180회) / 레지오(60회) (구분 집계 미흡)	
	성체조배 (시간.회)	108	(일부 집계)	
	기타	519		
비 매 년 적	비신자 입교권면	971	방문선교(회) / 가두선교(회)/ 소개서(장) (구분 집계 미흡)	교리반 인도 75 명
	교리 중단자 권면	30	동행 출석 관리 등	교리반 인도 1 명
	예비자 교리반 인도	598	동행 출석 관리 등	영세자 46 명
	통신 교리자	67	통신 교리자의 세례 안내	영세자 2 명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	111	동행 출석 관리 등	영세자 10 명
	교리반 봉사 및 협조	248	교리반 출석, 간식봉사 방법안내, 중심미사 및 평일미사안내	영세자 명
교 우 돌 봄	신영세자 돌봄	297	방문(회) 전화 방문기도, 단체가입 권유	단체가입 1 명
	교우가정 돌봄	2,344	방문(회) 영적대화 및 기도, 단체가입 권유	단체가입 3 명
	냉담 교우 돌봄	995	방문(회) 성사권면, 영적대화, 회두권면, 교적정리권유	회 두 40 명
	혼인 장애자 돌봄	22	방문(회) 조당해소 권유, 관면훈배	해 소 3 명
	성사 권면	801	판공성사 권면, 성사표 전달, 성사안내	판공 123명, 견진 18명
	전입 교우 돌봄	27	방문(회) 주보전달, 미사안내	단체가입 3 명
	첫 영성체	106	첫영성체 교리반 봉사	9 명
	유아 세례 권면	71	유아세례권면 및 유아 돌봄	유아세례 23 명
	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1,533	연도 904명 입.축관,염봉사 79명 장지 및 화장장 112명	장례미사 385 명
	교우 환자 방문 및 돌봄	1,781	방문 및 기도, 영적대화	병자성사 영성체 40 명
이 웃 배 려	비신자 환자 방문 및 돌봄	421	병원방문, 음식봉사	대세자 7 명 보례자 명
	비신자 상가방문 및 돌봄	472	상가방문, 일손돕기	
	병원 봉사 및 활동	451		
	복지시설 노력 봉사	948	파티마-거즈 접기, 성산복지관,교도소,풀잎마을,노인정,평화의마을,장애인복지관, 시립치매병원, 정신보건센터, 한마음의 집, 봉사 및 반찬, 도시락 배달	
	재해지역 봉사			
	기타	723	빈곤자 돌봄, 사회봉사, 외인 및 이웃 봉사, 가정일손 돕기, 기타봉사	
확 장	소년 레지오 지도	0		
	행동단원 모집	636	타 Pr. (명), 입단권유 및 돌봄	입단 56 명
	협조단원 모집. 돌봄	1,386	입단권유 및 돌봄	입단 38 명
	레지오를 위한 활동	4,014	평의회, 교본연구, 각종 회의자료 작성, 레지오 행사 협조, 단원관리 등	
편 의 협 조	본당 교세조사(호별방문)	425	(구분 집계 미흡)	면담 세대
	행사 준비 및 협조	9,244	성가대 전례협조 제대회 봉사 사목및 재단체 월례회, 교구 행사 및 협조	
	주일 학교 돌봄	309	주일학교 봉사	
	청소미화 및 기타	405	시설물 관리, 본당 청소, 주일 차 봉사	
	소공동체 활동(본당/직장)	929	참석 2143 회 구역, 반장교육 (교구) 89 회 참석권유 268 회 기타 255 회	
기 타	출판물 보급	502	주보 전달	
	자연보호 활동	2,285	휴지줍기, 곤충보호	
	차량봉사 및 교통정리	2,748	직장과 이웃의 차량봉사	
	생명 존중 활동	100	(집계 미흡)	
	가정성화 활동(가족단위)	553	가정피정, 성지순례,꽃동네방문,가족함께기도하기,ME 주말 참여	

12. 평가 및 향후 계획

1) 현황분석

가. 조직 현황

구 분	꾸리아	쁘레시디움	행동단원	협조단원
전차(제 14차)	3	43	309	242
현재(제 15차)	3	40	305	223
증 감	0	-3	-4	-19

나. 활동 현황

구 분	기도활동	복음선교	교우/이웃돌봄	레지오 확장	본당 협조
전차(제 14차)	-	2,311	10,657	6,988	13,947
현재(제 15차)	503,694	2,025	10,992	6,036	11,312
증감	-	-286	+335	-952	-2,635

다. 평가

- 평의회와 뿌레시디움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평의회 간의 뿌레시디움 이동과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각 뿌레시디움 당 적정 단원수를 유지하고 뿌레시디움 회합 분위기를 활성화하여 주회합 출석율도 향상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본당의 신자 수 감소 추세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서 레지오 단원의 적정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교우/이웃 돌봄 활동은 증대하여 알고 계시는 이웃 신자 간의 활동은 증가하였으나, 복음선교와 레지오 확장과 본당협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활동이 정체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2) 향후 계획

1. 활기찬 주회합 만들기.

- 레지오 단원 확장 : 신영세자와 협조단원에 대한 레지오 확장 활동으로 행동단원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Pr. 간부들의 정예화 : Pr. 간부들의 자질이 Pr.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므로 직책교육을 실시하고 레지아 위탁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간부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Pr.단원간의 화합 : Pr. 야외행사 방식 변경 및 자체피정, Pr.친목회 등을 통하여 단원간의 화합과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2. 레지오 단원의 자질 향상하기

- 제1단계 순회 기사교육 및 단원소양교육, 피정과 레지오 신 단원(행동단원, 협조단원 포함)을 위한 레지오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영성을 강화하고 레지오 정신을 고취시킨다.

13. 활동사례

복음 선교

다. 입교권면(1)

‘미사가 끝났으니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 쉽게 가닥이 잡히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용기가 부족한 것인지? 신앙이 부족한 것인지? 사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자신에게 되물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를 성당으로 안내할 생각으로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가톨릭 이야기]라는 책자를 보여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친구의 마음이 움직여 대방성당 주일 미사에 참석도 하였습니다. 친구는 몇 차례 저와 함께 주일미사에 참여한 후, 친구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성당의 교리반에 들어가 현재 열심히 교리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는 8월에 세례성사를 받게 되며, 저와 함께 주님을 가까이 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제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인으로써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중재자의 모후 Pr.

라. 입교권면(2)

레지오 단원으로 입단 한 지 2년이 되었다. 교본 연구와 단원 교육을 통하여 단원의 의무 중 외인 선교가 아주 중요한 임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선 비신자인 남편부터 인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또 일상생활 중에 특별히 잘 대해 줄려고 노력하면서 신앙관련 서적과 주보의 좋은글을 보여 주기도 하고, 성당에 데려 달라고 일부러 부탁하여 동행해 보기도 하였지만, 남편은 성당 문안에 발을 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은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혼란스러웠다. 가까운 가족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어찌 외인 선교를 한단 말인가 하고 자괴감에 빠지곤 하였다. 그러나 다시 또 용기를 내어 성모님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청원하면서, 결국에는 성가정을 이루는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도와 정성을 다 할 것을 다짐 합니다.

즐거움의 샘 Pr.

마. 입교권면(3)

딸 친구 중에 유난히 마음이 가는 친구가 있었다. 성실하고 예쁜 맑은 눈동자를 지닌 친구였는데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1년 후 4년제 야간대학을 진학 하였다. 직장도 가톨릭계를 다니고 있었지만 바쁜 탓인지 신앙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우리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집에 빈 방도 있고 그 친구가 사는 모습이 떠올라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에 권유를 하게 되었고 수락을 하여 딸 친구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친구는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교리반에 등록하게 되었다. 4학년 마지막 학기라 논문준비 등 힘든 여건속에서 교리를 받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아셨는지 직장에서 졸업한 뒤에 대졸 연봉을 인정

해 주겠다는 전례에 없었던 약속을 받는 은총도 얻게 되었다. 영세 후에도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게되면 혼자서라도 가까운 성당을 찾아가 주일을 지키며 예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천사들의 모후 Pr.

바. 입교권면(4)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자매님이 있었다. 같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은 그 자매님은 자신도 예전부터 천주교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입교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과 예비자 교리반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 자매님을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여 입교를 시키게 되었다. 교리반 인도와 함께 매주 수요일이 되면 그 자매님과 함께 교리반에 동행하면서 안내를 하였고, 그 자매님도 열심히 교리반에 출석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결석을 한 번 두 번 하더니 교리를 계속하기가 어렵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고 권면하였지만 대학원 등록과 더불어 갑자기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꼭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들의 부족한 정성 탓인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탈락 되는 예비자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 한 켠이 텅 비어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았고, 우리의 힘보다는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로써 도움을 청하고, 또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노력도 최대한 기울여서, 한 번 입교된 예비자들은 되도록이면 탈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샬별 Pr.

사. 입교권면(5)

여고 입학식 날, 설레임으로 들어선 교정에 환한 미소로 서 계시던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졸업 후, 이런 저런 이유로 20년이라는 긴~세월을 방황하다 삶의 고달픔은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성모님을 떠 올리게 했습니다.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성당에 나오던 날, 첫 미사의 가슴 벅참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열심히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가족이 모두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년 후 세례를 받았고, 부부가 나란히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은총이 두 딸에게 전해지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동거리며 성당을 다니던 아이들도 이젠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을 키워 나가는 모습에서 성가정을 이룰 수 있게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 올지라도 하느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가슴 벅차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성모님과 함께 두 손 꼬~옥 잡고 봉사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이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 입교권면(6)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聖化)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교리반으로 인도하는 것 즉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레지오 단원의 의무임을 항상 명심하고 살며, 행동 또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단원들 개개인의 행동에 조심한다. 이런 마음으로 교리반이 열림을 알리는 일에 전단원이 충실히 활동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리반에 인도되어, 영세를 받을 때까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하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자. 입교권면에서 견진성사까지(7)

지난 봄 어느 날 친정 가족 친지 모임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난 자리에서 조카에게 조용히 다가가 머뭇거리며 어렵게 건넌 말. “성당에 다니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조카는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예, 이모 언제 성당가면 됩니까?” 라고 말했다. 이 조카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곳곳을 많이 구경하고 다녔는데 로마 바티칸 성당을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신앙이란 걸 알고 싶어 했다고 반색을 했다. 오히려 말한 내가 더 놀랄 정도였다. ‘아! 내가 참 잘못 했구나.’ 이렇게 말을 꺼내기만 하면 선교가 되는데. 얼마나 많이 망설였는지. ‘왜 이제야 말했을까?’ ‘좀 더 일찍 말할 걸!’ 기회가 좋은 나쁜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 ‘앞으로는 망설이지 말자’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조카를 교리반에 인도했다. 그 후 조카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여 영세를 받았고 연이어 견진 교리까지 받아 견진 성사도 받았다. 어렵게 꺼낸 선교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한 영혼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 조카를 통해 믿지 않는 조카 집안의 많은 부모 형제자매들과 이웃에게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기를 성모님께 전구 청하며 오늘도 사랑의 샘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샘 Pr.

차. 입교권면(8)

몇 년 전부터 제가 바쁠 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서서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나중에는 종교이야기까지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한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제가 성당에 다니면서 가정생활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 왔습니다. 그 물음에 스스럼없이 답했습니다. 고백기도문 중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는 구절을 상기하며, 생각과 말과 행위 중 저의 잘 못된 부분을 항상 상대방과 비교하며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 해 주었고, 그 외에도 많은 하느님의 말씀들이 저의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후 성모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몇 일 후 그 동료 자신도 성당에 가 보겠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동료를 예비자 교리반에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당신의 집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시고, 당신의 집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말씀과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입교한 그 동료가 하느님의 집에서 예비자 교리 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느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예언자의 모후 Pr.

카. 입교권면(9)

같은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살고 있는 형제님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만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동네 상가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가게에서 남편과 안경을 맞춘 터라 일면식이 있는 분으로서,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딱히 할 말도 없고 해서, '저는 성당에 다니는데 성당에 다녀 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운을 뗐더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 예비자 교리 시작 즈음 에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 함께 방문하여 입교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도 지금 그 형제님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교리를 잘 받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자매님과 자녀들이 교육문제로 외국에 나가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 가족 모두 같이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님의 바람대로 형제님도 세례 잘 받고 화목한 성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해 봅니다. 돌아보면 어떤 힘으로 그 상황에서 성당이야기를 했는지 저도 의문스러웠지만 주님의 이끄심과 도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 관심은 있는데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부족한 자신감에 망설이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총과 하느님의 나라는 미약한 겨자씨에서부터 시작함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매괴의 여왕 Pr.

타. 입교권면(10)

단원 중에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어 마을 주민센터에 하모니카 교실을 개강하여 재능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안 되는 수강생이었지만 입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서, 온라인 카페를 통하여 서로 근황을 묻고 친숙한 관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더 많은 분들이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느님의 자녀도 있었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에게 주로 대중가요 및 동요를 가르치고 가끔 성가를 한 두곡씩 연주하니 새롭다면서 좋아하기도 하고, 악기를 통한 연주만 아니라 성당에서 성가대 활동에서 배운 성가를 불러 보기도 하였습니다. 대중음악은 물론이고 성가도 좋아 하였으며, 성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성당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들 중 성당에 다니고 싶어 하는 자매님이 있어 가까운 성당에 안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세를 받아 신앙 생활하는 분과 현재 교리중인 자매님이 두 분이나 더 계셔서 올해 연말 성탄 때 쯤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가 탄생하는 기쁨을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달란트를 통하여 하느님의 알리고 하느님이 보시게 좋은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성모님께 더욱 더 기도드립니다.

존경하올 그릇 Pr.

파. 입교권면(11)

지난 해 저희 뽀레시디움은 단장이 두 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모님께 의탁하며 기도의 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 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분으로부터 성당에 가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마침 예비자 교리반 모 집중이라 주말반에 등록시키고 적극적으로 함께 미사에 참여에 동행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 분께서는 무사히 예비자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뽀레시디움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상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선교 활동이 어렵고 힘들지만 레지오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하. 입교권면(12)

자녀들이 어릴적부터 남편분의 직장을 따라 인도, 태국, 멕시코 등으로 옮겨 다니며, 15년간의 타국 생활에 마음이 찢들려가고 황폐해져만 가고 있음을 느끼던 친구가 어느 날, 유명한 멕시코의 성모 성지인 과달루페 성당을 여행하는 모습과 그곳에 출현한 과달루페 성모님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다. 그 후론 줄곧 집과 가까운 성당의 수녀님과 친분을 쌓으며 가톨릭교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자녀 둘은 미국 유학 생활로 떨어져 있고 두 부부만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소식과 함께 오랫동안 타국에서만 지내와 너무 많이도 변해버린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푸념을 듣게 되었다. 연락을 하고 지내는 친구들 중 가톨릭 신자들이 세 명이나 있는 지라 늘 SNS로 일상의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과로 자연스레 잘 할 수 있다며 안심시켰고 우리 성당 이미지를 알려주곤 하였다.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에서 자주 접했던 종교인지라 별 거부감 없이 잘 적응하며, 다른 친구랑 예비자 교리때 마다 늘 동행하며 교리가 끝난 후엔 같이 차도 마시고 「성모의 밤」 「연도」 「파스카」 「성령」 등의 용어를 질문할 때면 같이 찾아보고 더불어 우리들도 교리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신선함을 느끼곤 했다. 글로벌 시대답게 기계 문명의 발달로 SNS(카카오톡)으로도 항상 예비자를 톡 부러지게 관리할 수 있음에 참 많이 수월해 졌음을 느끼게 된다. 친구와 함께 주님의 곁으로 한발자국씩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과 계명을 마음속 깊이 받아 드려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리라는 다짐을 해본다. 아울러 친구 역시 세례를 받아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온유하신 어머니 Pr.

거. 입교권면(13)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교리반에 들어가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은 2년 전 제가 개종을 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20년 넘은 불교신자였을 당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몸과 마음은 더 나쁜 상태로만 변해갔습니다. 그 때, 지인의 대모님 소개로 신부님을 뵈게 되었고, 면담 후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온갖 불안과 고통, 슬픔 등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와 숨을 쉴 것 같았습니다. 직장생활로 바쁜 와중이지만 레지오 활동까지 하게 된 저를, 두 사람은 만날 때 마다 참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나의 변화된 모습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제가 얻은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에 대해 얘기하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켜보며 동고동락 했던 그들은, 부족한 말보다는 변화된 제 모습에서 많은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기까지, 자주 만날 수는 없었지만 늘

그들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 역시 직장 생활 때문에 결석을 자주 하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대하며 두 사람에게 대하여도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참으로 기적 같기만 합니다. 놀랍기만 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신앙생활을 이어 갈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겸손하신 모후 Pr.

너. 입교권면(14)

세례를 받은 지는 오래 되었지만 가게를 하다 보니 시간을 내어 레지오나 신심단체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신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성경도 읽고 필사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던 차에 딸이 고3이 되면서 아이의 공부와 엄마의기도가 동행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번 권유를 받았던 레지오팀에 입단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활동이 가장 큰 단원의 활동인것 같아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종교도 물어보고 “가까이 대방성당이 있으니 기회 되면 한번 와 보세요” 권유도 하며 또 타종교 신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영적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이라 정성껏 대접해주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 주다보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편하게 자주 방문을 해주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신교에 다니 다가 쉬고 있는 손님 두 명을 알게 되어 천주교를 알리게 되었고 주보와 신앙서적을 드렸더니 기쁘게 받아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중 한명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자 환영식에 같이 가자고 권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선뜻 따라나섰습니다. 함께 교리와 미사를 동행했는데 서서히 우울증도 치유되고 성모승천대축일에 세례를 받은 후 레지오에 입단하여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분의 손님도 토요일 교리반에 입교하여 교리 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혹은 방문 선교는 하지 못하지만 가게에서 일을 하며 같은 지향으로 톡톡이 성경을 읽고 쓰며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순결하신 모후 Pr.

너. 입교권면(15)

시댁의 외가 쪽은 거의 천주교 신자인 반면 친가는 불교를 믿고 있어 남편은 이도저도 아닌 무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10년 전 세례를 받고 아들과 남편도 세례를 받았으나,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날만 되면 부적을 주시며 사용하라하시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편찮으시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고 저는 이때다 싶어 두 분께 적극적으로 신앙을 가지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아버님은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은 교리반에 등록하여 열심히 교리를 받으시고 12월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외로운 상황에서 교인들이 적극 관심을 보여주자 친구들도 생기시고 어머님의 성격도 많이 밝아지시고 활기도 찾으셨습니다. 팔순은 연세에 새 생명을 얻으신 시어머님께 많은 은총이 내리길 빌며 남은 여생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사리오의 모후 Pr.

너. 입교권면(16)

우리 단원 중에 한명이 타 교구에 다니시는 자매님을 잘 알고 지내던 중에 시댁이 진례에 있다고 하시며, 진례에 오시면 꼭 우리 진례성당에서 미사참례를 자주 하시어 친분이

많은 중에 그 자매님 대녀의 딸이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알고 지내는 총각이 진례에 소재하는 도예가의 아들인데 사위감으로 적당한지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저희 단원은 결혼을 시키려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적극 권유하였고 그 대상자를 입교시켜 주일미사 참례와 교리반 인도를 권유하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세례를 받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두 사람은 지금 우리 성당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댁부모님을 성당으로 인도하여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봉사로써 성모님의 군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3(진례) Cu., 창조주의 모후 Pr.

며. 개종권면 (1)

친정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집의 우물가에 촛불을 켜놓고 자주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 친구분을 따라 마을 교회에 몇 번 가봤는데 성령에 대해 들었다면서 성령이 뭐냐고 물으시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의 어머니에게 깜짝 놀랐고, 궁금해 하는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가 아닌 성당에 다니시기를 계속 권유했습니다. 목주기도를 할 때마다 성모님께 어머니를 의탁하면서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뵙면서 “엄마가 꼭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께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할 때 저의 집에서 며칠 요양하시면서 거실에 있는 성모상에 예를 표하면서 “성모님, 제가 잘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하고 간곡하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몸이 회복되자 어머니께서는 교리반에 입교하셨고 오는 9월 21일 연산성당에서 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를 하느님의 자녀로 이끌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상의 어머니 Pr.

버. 개종권면 (2)

사이비종교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도중에 우리 단원이 자주 방문하여 사정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지는 등 좋은 표양을 보였더니 대상자는 가톨릭에 관심 갖고 입교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우리 단원이 입교안내하며 주일미사 참례를 딸과 함께 하던 중 감기몸살로 미사에 참석하지 못 할 때도 있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입교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사정상 작은딸과 부인만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있어 우리 단원 모두가 그 가정을 위한 지향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짐하였습니다.

제3(진례) Cu., 창조주의 모후 Pr.

교우 돌봄

서. 냉담교우 회두권면(1): 회두한 자매 조당도 풀고 견진성사까지

10년 전에 알던 한 자매를 우연히 성당에서 만났는데 이 자매는 옛날에 영세를 받았지만 그 동안 냉담 속에 살다가 옛날에 믿었던 주님 생각에 혼자 다시 성당에 오긴 했는데 교리도 잘 모르겠고, 성사를 못 보아서 성체도 못 모시고, 아는 사람이 없어 물어 보지도 못하고, 신앙에 무지한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워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던 중이라면서 저를 만난 것이

너무 반갑고 기쁘다고 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많은 영적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신부님을 만나 면담 성사를 보게 하였으며 그동안 풀지 못한 조당도 풀게 하였고 견진교리도 안내하여 견진성사까지 받게 하였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지금은 딸아이의 아기를 보느라 올 수 없지만 이 일이 해결되면 레지오도 오겠다 하였다. 저도 정말 큰 보람을 느끼며 한없이 기뻐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는 말씀이 실감 났다. 주변에 베푼 조그마한 친절이 이렇게 큰 은총과 축복을 가져올지 몰랐고 냉담자 들이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고자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주변에 많고 많은 냉담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모든 일들이 어찌 우리 힘만으로 되겠는가? 나는 한날 주님의 도구 일 뿐!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성모님의 전구와 도움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기에 더더욱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모님의 눈길 아래서,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해 주시길 간절히 청하며 ‘사랑의 샘’ 모든 단원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데려 오는데 기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Pr.

어. 냉담교우 회두권면(2)

자녀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사회생활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가를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신앙생활은 점점 멀리하고 있는 것만 같이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부터인가 주일 미사 참석은 하지 않고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움과 걱정 속에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하였지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잘 풀어지지 않는 매듭으로 뒤엉켜 있었으며, 그렇게 하여 흘러간 시간이 2년이란 긴 시간을 냉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심이 부족한 탓인가 싶어 고심 끝에 주님과 성모님께서 그 엉켜진 매듭을 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자녀가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보에 부활 판공성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자녀와 대화를 하여 엉켜진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던 중 자녀는 판공성사를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신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은총이라 믿으며, 이제는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신비로운 그릇 Pr.

저. 냉담교우 회두권면(3)

11년 전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을 때 한 통로에 사는 냉담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성당에 같이 가기를 권유하며 본당 행사와 반모임에도 여러 번 초대해 보았지만 별 반응 없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본당에서 냉담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자매님을 기억하며 미사와 묵주기도를 꾸준히 하였고 특별한 음식도 가끔씩 나누면서 일상생활 이야기와 영적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들도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이 자신의 종교인 불교에 함께 하기를 원해서 힘들었지만, 아들은 성당에 나가기 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주말 저녁 미사에 동행하여 고해 성사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 후 매주 문자로 미사시간과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청년회장, 대부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하여 영적 도움도 청하였습니다. 자매님의 아들은 현재 스스로 청하여 토요일

주일학교 차량 운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자매님도 하루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 모 두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구세주의 어머니 Pr.

저. 냉담교우 회두권면(4)

저희 집 이웃에는 매일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해서 만날 때 마다, 혼자 듣기 아깝다 고 성당에 와서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또 기쁨을 공유할 수 있지 않겠냐며 입교를 권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자매는 사실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면서 집 가까이에 성당이 없었고, 그러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몇 년 전 부터는 교회 또한 나가지 않고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회유 끝에 미사에 참석도 해보았지만, 오랫동안 다닌 교회의 분위기와도 다르고 첫 영성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를 다시 배워야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며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그 자매에게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루 빨리 마음이 열려 교리반에 나올 수 있기를 저희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께 늘 기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모후 Pr.

커. 냉담교우 회두권면(5)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쉬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다. 그중에는 영세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쉬는 교우들도 있다. 예수님이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셨던 것을 본받아 우리 단원들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기로 하였다. 매 주 주보를 전달하고 만날 때마다 대화도 하였지만 성당으로 인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단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권유한 결과 11명의 형제, 자매 들이 성사를 보고 다시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우들이 쉬고 있다. 어떤 형제님은 전달해준 주보를 보고 ‘아버지 학교’에는 다녀왔지만 성당에 나오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단원들은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쉬고 있는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리시어 하루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터. 냉담교우 회두권면(6)

건강상의 이유로 쉬고 있는 자매님의 집에 주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주보를 꼼꼼히 읽으시며 교회소식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매님께 주보는 교회와의 연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방문도 전화도 반기지 않기에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의지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나오지 않는 자매님께 용기를,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손안에 주어진 작은 주보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향하는 하느님의 손길이며 통로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길이 자매님 마음을 움직여 하루 빨리 우리들 곁으로 돌아와 함께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다의 별 Pr.

퍼. 어려움을 겪는 분 돌봄(1)

레지오 활동을 위해 봉사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해가 되고 보니 봉사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면 종종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서인지, 아이들 학교에서 엄마와 함께 하는 봉사단체가 생겼을 때 아이가 먼저 그 단체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 의도는 솔직히 불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봉사시간도 채우고,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사춘기도 쉽게 넘길 것 같고, 무엇보다 엄마가 이거라도 같이 가주면 성당도 좀 열심히 다닐까 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주일학교도, 복사도, 미사도 등한시 하는 것이 마음 아플 때였습니다. 같이 봉사활동 가주니까 성당 열심히 다니기로 다짐도 받았습시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장애인복지관 목욕봉사입니다. 처음 그들을 대할 때 아이들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목도 가누지 못하고 평생을 누워 지낸 그들의 뒤틀어진 몸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몸이 불편하니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럼없이 그들을 대하는 아이들을 보며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웃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아이가 되어감에 감사드리며,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별다른 이끌여움 없이도 스스로 미사에 잘 참여합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참 마음에 드는 자녀로 이끌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비의 모후 Pr.

허. 예비자 돌봄(1)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결코 성당에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시던 일흔을 넘기신 형제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이 힘들어 하고 계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인의 권유로 어렵게 결정하고 교리반에 나오신 형제님이 처음 성당에 들어서던 날 눈동자가 흐려짐을 보였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고통의 긴 여정, 이제 삶의 이정표가 될 하느님의 말씀은 등불이 되고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교리 기간 동안 늘 같이 미사 참례하며 우리는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난 성탄 대축일 세례를 받던 날 왜소한 체구에 환한 미소를 띠고 개근상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은 지 한 달쯤 되어 형제님께 “좀 어떠세요?” 하고 여쭙더니 남은여생 한번 더 길을 잃어야 한다면 주님 안에서 잃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하느님의 은총 속에 잠긴 형제님의 모습은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이 형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은총의 샘 Pr.

고. 예비자 돌봄(2)

타 교구 교우분께서 예비사위를 영세시키고 싶다는 간곡한 부탁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에는 예비신자가 없어 교리반 개설을 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신부님께서 곰곰히 생각하신 후 봉사자를 구해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지오 단원들이 여러번 예비신자를 돌보아 영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친언니의 권유를 받아 영세받기로 결심한 예비신자 한 분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성당의 교리반에 인도해 주었고 이를 인연으로 교리시간마다 전화연락과 관심으로 예비신자를 돌보았습니다.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었지만 두 분이 새롭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저희 레지오단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3(진례) Cu., 애덕의 거울 Pr.

이웃 돌봄

노. 장애인 복지관 봉사(1)

우리 레지오가 장애인복지관 봉사를 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매주 월요일마다 봉사를 했지만 지금은 첫 째 주와 셋 째 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점심식사 준비와 배식, 설거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는 우리 집 아이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고, 아이들에게 배식을 할 때마다 웃는 얼굴과 다정 다감한 말을 나누며 보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단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인생을 먼저 살았던 선배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배우기도 한답니다. 특히 마지막에 설거지 할 때는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는 마음으로 이겨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아이들이 먼저 반갑다고 인사를 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봉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우리 단원들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성심 성의껏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한다는 뿌듯한 마음과 사랑이 성모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우리 단원들은 이러한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레지오 확장

도. 행동단원 모집 및 돌봄(1)

저희 뽀레시디움에 남성 소공동체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 단원은 레지오 단원 모집을 위해 미사 시 항상 본당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으로 새로 전입 오셨거나 첫 걸음을 하신 분을 찾아서 본당 공동체에 인사 시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구역에 혹시 전입 오셨거나 새로 입교 하신 신자가 있는지 사무장을 통하여 명단도 입수하고 또 여성 구역장을 통하여 정보도 받고 하면서 기다리던 중, 마침 서울에서 근무하다 창원으로 발령을 받아, 약 1년 전부터 본당의 미사에는 나오고 있지만 소공동체 모임에는 나오지 않는 교우가 있음을 알고, 소공동체 모임 참석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이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며, 레지오 활동은 하지 않으나 구역 봉사활동에는 오히려 앞장서는 열심한 젊은 교우 한분을 소공동체 모임 시 레지오 입단을 여러 번 권유하였으나, 본인이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마음은 급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같은 구역의 단원 3명이 한 조가 되어, 또 필요시 뽀레시디움의 전 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활동으로 곧 입단 하겠다는 결심을 받게 되었다. 저희 기쁨의 샘 모든 단원들은 이번 사례를 거울로 삼아 단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성모님의 군단으로 손색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활동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천주의 성모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기쁨의 샘 Pr.

로. 행동단원 모집(2)

다시 태어난 상아탑 Pr.에 격려와 성원을.....

상아탑Pr.이 여러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남아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다독거리 주신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아탑Pr. 호도를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기다려주신 평의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아탑Pr. 단원들이 보고 드린 내용과 실적이 너무나 초라하여 부끄럽기 짝이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아탑Pr.은 전차 단원 8명, 현 단원 7명으로서 1명의 정단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치상으로는 1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3명의 새로운 정단원을 얻는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등록 단원은 8명 이었습니다만, 직장일로, 병환으로, 개인사정으로 장기 결석하는 단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주회에는 한두명의 단원이 참석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날이 점차 늘어나고, 활동단원 수가 적은 Pr.간에 통합한다는 소식에 가슴 졸이는 날이 많아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호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상아탑을 불쌍히 여기소서!”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님께서 예비자 교리반이 있음을 안내해 주셨고, 신부님과 평의회에서는 열심한 형제님을 연결해 주심에 힘입어 이제 우리 상아탑Pr.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가득히 번지는 그리고 마음 든든한 정단원 7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견고한 성모님의 군대로서 활동할 것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아탑 Pr.

모. 행동단원 모집 및 관리(3)

저희 황금궁전은 3년 전부터 보다 강한 pr.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2가지 슬로건을 설정하여 충실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동단원을 배가하여 ‘안정되고 모범적인 모습을 구현하는 것’과 둘째는 단원들간 ‘가족처럼 사귀며 나누는 것’입니다. 2011년에는 행동단원 4명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매년 1~2명의 단원을 모집하여 2014년 마침내 단원배가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에는 2명이 입단하여 이제 9명으로 단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증가 아닌 단원들의 깊은 고민과 지혜 그리고 수고로 이룬 값진 성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활동할 대상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각 단원들이 본당의 타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입교우, 새 교우, 쉬고 있는 단원, 아직 입단권유를 받아 보지 못한 교우,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교우 등 저희는 모이면 전략을 세우고 흠어지면 활동하면서 지난 1년간 소공동체 모임에서 1명과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교우 1명을 새 단원으로 입단 시켰습니다. 특히 외국인 단원에게는 콘칠리움 사이트에서 원문교본을 다운받아 지급하고, 레지오 기도문과 묵주기도 등을 지도하여 이제는 레지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힘을 얻어 2015년에는 입단목표를 3명으로 세웠으며, 현재 4~5명의 교우에게 정성들여 입단권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즈음 형제님들의 힘든 사회활동을 감안한다면 탈단자 없이 Pr.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임에도, 저희 단원들은 높은 자긍심과 함께 이제 안정된 모습을 구현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교본연구를 강화하고 상호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교본에 충실한 단원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부님 강론말씀

을 요약하여 황금궁전 카톡방에 공유함으로써 평일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들도 말씀을 생활 중에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한번 입단한 단원이 레지오를 떠나지 않도록 가족처럼 사귀며 나누는 형제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봉헌된 자로써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생활을 하는 단원으로, 주위를 살펴보며 봉사하는 충실한 단원으로 레지오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황금궁전 Pr.

보. 행동단원 모집(4)

이웃에 사는 형제님이 사목위원과 레지오 단원활동을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항상 보기 좋았고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직장관계로 레지오를 쉬면서 저희 레지오 협조 단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전처럼 왕성한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형제님께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성모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동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형제님은 직장인으로 레지오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주회 참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원들은 한마음으로 성모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야외행사와 이동주회 때에 자연스럽게 함께하면서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형제님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게 하여 타 브레시디움에 입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지오 활동의 보람과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모범 레지오 단원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단원들은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인자하신 모후 Pr.

소. 행동단원 모집(5)

이사를 와서 집 근처의 산으로 아침 등산을 다니면서 눈 인사를 하고 지내던 자매님의 인연은 시작 되었습니다. 영세 받고 성당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던 교우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가끔 미사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등산하다 마주치면 본당 소식도 전했고 가까운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터라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를 방문하여 세상의 어떤 기준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알고 관리하는 교우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변이 다가가지 않아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교우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협조 단원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여 기도 중에 단장님과 동행해서 직장이 있어 활동이 부담된다는 자매님의 걱정을 성모님께 맡기기로 하고 우선 참관을 권유하였습니다. 참관하는 동안 단원들과 함께 행동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성모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정하게 대하는 단원들의 모습에 성모님과 함께 매주 카페나를 바칠 수 있는 단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성모님께 함께 기도하고 또 호흡할 수 있는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인내의 샘 Pr.

오. 행동단원 모집(6)

교리 반에서 수업을 받을 때부터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다가 영세를 받음과 동시에 레지오에 입단을 시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이라 생

각하고 행동한다. 그리고 입단권유자의 명단을 수첩에 적어두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미사후차를 마실 때나 만날 때마다 입단을 권유하고 같이 활동함으로서, 신앙생활이 더 깊어지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음을 강조하다보면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의 안내로 레지오 마리아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은총의 어머니 Pr.

조. 행동단원 모집(7)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뵘레시디움은 1꾸리아 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단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명씩, 한명씩 레지오를 떠나고 두세 명 남아있는 단원마저도 유고 무고 결석으로 혼자서 묵주기도를 하는 날들이 계속되어 주회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간부. 공식중인 간부의빈자리, 레지오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단원, 생업이 바쁜 단원, 무엇하나 레지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겨우 단원을 입단 시켜도 서먹하고 설렁한 레지오 분위기 때문에 한두 번 참석 하다가 그만 두는 일이 반복 되고 그때마다 정말 성모님께 죄송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레지오 주회날만 되면 갈등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단원들이 나올까? 그냥 집에서 쉴까? 레지오를 꼭 해야 하나? 호도를 반납할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장은 한사람의 단원이라도 참석하였을 경우 주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주회를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꾸리아 에서는 간부들이 주회함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신 단원 모집과 단원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신심도 깊고 열심한 단원들이 입단을 하게 되고 또 단원들은 모두가 출석의 중요성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레지오 교본을 함께 공부하며“레지오가 하느님의 숭고한 사업을 위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신비의 기사단이 아닌가”(교본122쪽)하는 아더 왕의 무용담도 알게 되었고 마음에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레지오 단원은 7명입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책임감으로 무장한 간부. 성모님의 신심으로 가득찬 단원 진정한 성모님의 군대로 성모님께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으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단원들이 다함께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성모님의 군대로서 손색이 없도록 공부하며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덕의 모후 Pr.

초. 행동단원 모집(8): 차별화 전략이 필요!

사실 우리 성당 신자들 가운데서 레지오 단원을 한 두 명이라도 입단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구역 내에 면식이 있는 신자에서부터 갓 영세한 신자, 그리고 대자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보지만 적당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어렵사리 설득해서 입단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도 끝내는 다음으로 미루는가 하면, 한 번 나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안 나오는 경우 등 여러 유형의 사정으로 실패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뵘레시디움에서는 단원 모집에 있어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저희 뵘레시디움은 탈단,이사 등으로 거의 와해 직전에 있을 정도로 단원 수가 간부 구성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단원들이 거의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성당 내에서 ‘술 안 먹는 레지오’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두 사람씩 스스로 찾아오거나, 아니면 이를 기치로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술을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둔 자매님들에게는 주효 했습니다. 이번에 40

대 중반에 있는 한 명을 입단시킨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분이 다른 레지오에 입단하기로 하고, 상견례 겸 그 쪽 단원들과 소주까지 한 잔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들 부부와 저희 단원들이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저희 레지오를 소개했더니, 그 분 자매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레지오 입단을 권유함으로써 성사된 경우입니다. 저희 레지오는 회합 후, 2차 주회가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자리 대신 커피나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에 부부동반 영화구경과 식사를 함께 함으로써, 성모님 안에서 더욱 거룩한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남편들은 술 적게 마셔서 건강에 좋죠, 부인들은 남편들이 생생한 정신으로, 일찍 들어와서 좋죠, 그리고 공동 영화 감상, 식사 등을 통하여 부부애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가정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면서, 저희 단원들은 자매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례 발표를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께서도 ‘술 적게 마시는 창조주의 모후’ 레지오를 적극 홍보해 주셔서, 조금 침체된 레지오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주의 모후 Pr.

코. 행동단원 모집(8)

마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왔으나 교적을 옮기지 않고 마산의 성당으로 다니던 자매가 있었다. 교적을 대방으로 옮긴 후에도 낯설어하며 겨우 미사만 다녔다. 같은 구역이라 만날 때마다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였고 몇 달 뒤에 레지오에 입단하여 단원들과 친교를 맺으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성경 쓰기과 읽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레지오 입단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Pr.

본당 협조

토. 행사준비 및 협조(1)

한 해 동안의 정의의 거울에서 입단권면과 입교권면에서의 활동이 많이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단원의 개인적인 업무로 1명이 퇴단하였습니다. 주변 교우들과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대화로 레지오 회합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레지오 회합에 참관토록 권유하자고 결의 하였으나 단원들의 바쁜 회사업무와 잦은 출장 등으로 1년 동안의 입단권면 활동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단장의 매주 지시사항과 점검을 실시하고, 단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디고 힘들지라도 꾸준한 노력과 기도로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나마 저희 뽀레시디움 단원은 본당행사, 전례봉사, 사목회에 다수의 단원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당 전례봉사, 사목위원을 맡으라고 하면 회사 일이 바쁘다든지 자신이 없다든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양하는 일이 허다하지만, 저희 뽀레시디움 다수의 단원이 바쁜 회사업무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의 마음으로 단장의 지휘아래 본당행사 및 협조에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동단원들은 주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사업의 도구로 써시도록 지켜보신다 것을 겸손과 순명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성모님께 의탁하면서 향후 레지오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뽀레시디움이 되도록 분발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의의 거울 Pr.

포. 행사준비 및 협조(2)

결혼을 앞둔 비신자분이 배우자의 권유로 세례를 받고자 하였으나 본당에서는 예비자 교리반 개설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이 교리지도를 시작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미사후에 교리지도를 하였습니다. 직장인이라 교리지도를 하는일이 쉬운일은 아니었지만 매주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있던중 예비자 한명이 더입교하여 두명의 예비신자와 함께 기쁘게 교리지도를 하였습니다. 주요교리는 본당신부님께서 직접하시고 교리지도를 잘 마무리 하여 두분의 예비신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권유로 세례를 받은분은 그후 혼배성사를 받았고 나머지 한분은 현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3(진례) Cu., 사랑의 샘 Pr. 일동

호. 구역 봉사(1)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을 맡으면서 봉성체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차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편하게 그분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봉성체 날 이 오면 조금 일찍 먼저 가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살피게 되었다. 그 분들이 병고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롭게 살아가시길 기도하며 내 자신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온유하신 어머니 Pr.

기타

구. 자연보호 활동(1)

저희 사도들의 모후 브레시디움은 50~60대의 장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례성당의 청년 일꾼 역할을 하는 보배라고 자부하는 성모님의 군사들입니다. 여건상 주중에 또는 조별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주말의 자투리시간에 단원들이 함께 모여 본당 주변의 환경미화활동과, 진례성당 관할 박대식 (빅토리노) 순교자 의 묘지 관리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많은 신자분들의 순교자 묘지방문이 활성화되고 있어, 입구에서부터 묘지까지 불편한 오솔길을 조금이나마 더 편안히 방문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 단장을 시작했다.3회에 걸쳐 비탈길을 계단식으로 바꾸고, 오르막길에는 노약자분들의 손잡이가 되도록 말뚝과 안내줄을 설치하였다. 서투른 솜씨들이지만 기도와 레지오의 정신이 어우러지니 보기에 좋고 방문객이 사용하기 좋게 되었다. 한여름의 불볏 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단원들은 역할 분담을 하여 땅을 파는 단원, 돌을 주워 오는 단원, 계단을 설치하는 단원 등 기도와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단원들의 결속력은 더욱 돈독해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활동이지만 내년에는 더욱 활동 영역을 넓히기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단원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순교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헤어졌다.

제3(진례) Cu., 사도들의 모후 Pr.

14. 조직현황 간부 명단

가. 간부 명단

1) 제6 꼬미시움

구분	담당사제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성명	백남국	임종선	권정숙	도칠훈	서은기
세례명	사도요한	요셉	요안나	라파엘메토디오	요안나
선출 일자	2014.01.03	13. 2. 3	13. 2. 3	14. 8. 3	13. 2. 3
전화 번호	275-4953 010-6691-1088	010-6512-9950	010-2225-7524	010-2780-9215	010-8771-2089
E-mail	-	0824jong@hanmail.net	ragab7524@hanmail.net	chdoh@keri.re.kr	eunki70@daum.net

나. 소속 꾸리아 조직 구성 현황(Co. 보고 시 만 기재)

순서	호도명	본부	설립일자	Pr.	행동단원				협조단원			
					남	여	계	쁘레	남	여	계	아듀
1	사도들의 모후	대방	01. 5. 30	13	49	60	109	0	10	51	61	0
2	순교자들의 모후	대방	03. 11. 7	13	0	96	96	2	13	85	98	1
3	영원한도움의성모	진례	01. 5. 13	5	11	14	25		2	17	19	

다. 뿌레시디움 현황: 제6꼬미시움 직속

1) 소속 및 직속 뿌레시디움(Co. 보고 시 직속Pr. / Cu. 보고 시 소속Pr. 기재)

순서	호도명	설립일자	회합			행동단원 협조단원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
			요일	시간	장소	남	여	계	임명일자	임명일자	임명일자	임명일자
1	천사들의 모후	80.11.30	수	10:40	유아	0	9	9	조갑윤	박행자	강복미	김명옥
						2	8	10	14. 5. 9	10. 9. 10	13. 3. 6	14. 12. 12
2	즐거움의 샘	99.10.26	화	20:10	지하3	0	11	11	김영란	박만자	전정숙	양미선
						0	10	10	14.10.14	14.10.14	13.09.06	14.10.14
3	상지의옥좌	99.10.26	수	20:10	지하4	11	0	11	윤영목	모현종	정병희	김종길
						0	2	2	14. 6. 22	14. 6. 22	14. 6. 22	14. 6. 22
4	평화의 모후	00.03.09	화	20:10	옥상1	0	7	7	김인찬	-	박병오	요아킴
						0	4	4	-	-	13.3.20	13.3.20
5	상아탑	01.12.06	수	20:10	지하5	7	0	7	김태경	원희상	윤성권	박성률
						0	2	2	09.1.9	12.10.12	12.6.8	10.12.10
6	황금궁전	02.02.21	화	20:10	지하4	0	9	9	정일영	윤명원	최화수	안후상
						0	0	0	12.10.9	12.10.9	14.8.8	14.8.8
7	중재자의 모후	03.07.08	화	20:10	지하2	5	0	5	천행길	조영규	김대하	홍현주

						1	6	7	12.10.12	12.10.12	14.6.13	12.10.12
8	셋별	07.03.23	금	10:40	지하3	0	7	7	최하백	황희순	황순옥	박미경
						0	5	5	15. 1. 7	15. 1. 7	13. 6. 8	15. 1. 7
9	기쁨의 샘	08.07.28	화	20:10	유아	8	0	8	김석현	구창신	이형철	노열순
						2	0	2	13. 6. 7	11. 7. 8	13. 6. 7	11. 7. 8
0	계	-	-	-	-	31	43	74	-	-	-	-
						3	39	42				

부 록

부록 1. 2015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순방계획

부록 1-1. 제6 꼬미시움

부록 1-2. 제1 꾸리아

부록 1-3. 제2 꾸리아

부록 1-4. 제3 꾸리아

부록 2. 2015년도 주일 미사 안내

부록 1. 2015년도 종합(사업)보고 및 순방계획

가. 보고 기간

- 1) 평의회 : 평의회별 보고기간을 적용한다.
- 2) 브레시디움 : 전차보고 ~ 보고 전 차수까지

나. 보고서 제출

- 2부를 준비 (1주일 전에 상급 평의회 서기 및 논평자에게 제출)

부록 1-1. 2015년도 제6 꼬미시움 사업보고 및 순방 계획

월별	사업보고	순방 및 논평		
		회합일시	장소	순방위원
1월	황금궁전 Pr.	화요일 20시10분	지하4	평화의 모후 Pr. 단장
2월	천사들의모후 Pr.	수요일 10시40분	옥상3	즐거움의 샘 Pr. 단장
3월	셋별 Pr.	목요일 10시40분	지하4	천사들의모후 Pr. 단장
4월	사도들의모후 Cu.	둘째주 금요일 20:10	지하강당	순교자들의 모후 Cu.
5월	순교자들의 모후 Cu.	둘째주 수요일 14:00	지하강당	영원한도움의 성모 Cu..
6월	영원한도움의 성모 Cu..	둘째주 일요일 20:10	강당	사도들의모후 Cu.
7월	성조들의모후 Co.	첫째주 금요일 20:10	지하강당	
8월	상지의옥좌 Pr.	수요일 20시10분	지하4	상아탑 Pr. 단장
	평화의 모후 Pr.	화요일 20시10분	옥상4	중재자의모후 Pr. 단장
9월	중재자의모후 Pr.	화요일 20시10분	지하2	기쁨의 샘 Pr. 단장
10월	즐거움의 샘 Pr.	화요일 20시10분	지하3	셋별 Pr. 단장
11월	기쁨의 샘 Pr.	화요일 20시 10분	유아실	황금궁전 Pr. 단장
12월	상아탑 Pr.	수요일 20시 10분	지하방	상지의옥좌 Pr.단장

부록 1-2. 2015년도 제1 꾸리아 사업보고 및 순방 계획

월별(차수)	사 업 보 고	순 방 및 논 평		
		회합일시	장소	순 방 위 원
1월 (164차)	가정의모후 Pr.	금요일 10시40분	유아실	사랑의 샘 Pr.
2월(165차)	자비의 모후 Pr.	수요일 10시40분	지하2	애덕의 모후 Pr.
	인자하신 모후 Pr.	화요일 20시10분	지하5	가정의 모후 Pr.
3월(166차)	인내의 샘 Pr.	금요일 10시40분	지하2	매괴의 여왕 Pr.
4월(167차)	사도들의 모후 Cu.	2주,금 20시10분	지하강당	
5월(168차)	천상은총의 어머니Pr.	목요일 20시 10분	지하4	예언자의 모후 Pr.
	사랑의 샘 Pr.	목요일 20시 10분	유아실	인내의 샘 Pr.
6월(169차)	신비로운 그릇 Pr.	목요일 20시10분	지하3	정의의 거울 Pr.
7월(170차)	정의의 거울 Pr.	목요일 20시10분	지하2	신비로운 그릇 Pr.
8월(171차)	예언자의 모후 Pr.	화요일 20시10분	지하1	천상은총의어머니 Pr.
9월(172차)	애덕의 모후 Pr.	수요일 20시10분	지하2	인자하신 모후 Pr.
	창조주의 모후 Pr.	수요일 20시10분	유아실	존경하올 그릇 Pr.
10월(173차)	매괴의 여왕 Pr.	수요일 10시40분	옥상4	자비의 모후 Pr.
11월(174차)	존경하올 그릇 Pr.	수요일 20시 10분	지하4	창조주의 모후 Pr.
12월(175차)				

주) 각 브레시디움 방문 시 꾸리아 간부가 동행합니다.

부록 1-3. 2015년도 제2 꾸리아 사업보고 및 순방 계획

월별	사업보고	순방 및 논평		
		회합일시	장소	순방위원
1월	로사리오의 모후 Pr	금요일 10시40분	옥상3	순결하신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vPr.	금요일 10시40분	옥상1	겸손하신 모후 Pr.
2월	은총의 샘 Pr.	금요일 10시40분	지하2	사랑하올 어머니 Pr.
	지극히지혜로우신 어머니 Pr.	수요일 10시40분	지하	로사리오의 모후 Pr.
3월	바다의; 별	금요일10시40분	지하3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4월	모든성인의 모후 Pr.	수요일 10시40분	옥상5	은총의 샘 Pr.
5월	순교자들의 모후 Cu.	수요일 14시 00분	지하강당	
6월	온유하신 어머니 Pr.	수요일 10시40분	지하1	구세주의 어머니 Pr.
7월	신비로운 장미 Pr.	수요일 10시40분	옥상6	온유하신 어머니 Pr.
8월	구세주의 어머니 Pr.	수요일 10시40분	지하강당	바다의 별 Pr.
9월	천상의 어머니 Pr.	수요일 10시40분	지하3	신비로운 장미 Pr.
10월	그리스도의 어머니Pr.	수요일 10시40분	옥상1	천상의 어머니 Pr.
11월	겸손하신 모후 Pr.	금요일 10시 40분	옥상6	지극히 지혜로우신 어머니 Pr.
12월	순결하신 모후 Pr.	수요일 10시 40분	옥상2	모든 성인의 모후 Pr.

주) 각 브레시디움 방문 시 꾸리아 간부가 동행합니다.

부록 1-4. 2015년도 제3 꾸리아 사업보고 및 순방 계획

월별	종합 및 Pr.사업보고	논평	순방
1월			
2월	창조주의 모후 Pr.	애덕의 거울 Pr.단장	Cu.단장 애덕의거울Pr.단장
3월			
4월			
5월	사랑의 샘 Pr.	애덕의 거울 Pr.단장	Cu.부단장 애덕의 거울Pr.단장
6월	꾸리아 종합보고	대방.사도들의 모후 Cu.단장	대방.사도들의 모후 Cu.단장
7월			
8월	죄인들의 피난처Pr.	사도들의 모Pr.단장	Cu.회계 사도들의 모후 Pr.단장
9월			
10월	애덕의 거울Pr.	창조주의 Pr.단장	Cu.회계 창조주의 모Pr.단장
11월	사도들의 모후 Pr.	Cu.부단장 죄인들의 피Pr.단장	Cu.단장 죄인피난처Pr.단장
12월			

주) 각 뵤레시디움 방문 시 꾸리아 간부가 동행합니다.

부록 2. 2015년도 주일 미사 주차 안내

월/일	담 당 브 레 시 디 움	월/일	담 당 브 레 시 디 움
1/4	천상은총의 어머니, 바다의 별	7/5	예언자의 모후, 가정의 모후
1/11	상아탑, 겸손하신 모후	7/12	정의의 거울, 겸손하신 모후
1/18	상지의 옥좌, 가정의 모후	7/19	존경하올 그릇, 계약의 궤
1/25	신비로운 그릇, 구세주의 어머니	7/26	중재자의 모후, 구세주의 어머니
2/1	예언자의 모후, 그리스도의 어머니	8/2	창조주의 모후, 그리스도의 어머니
2/8	정의의 거울, 로사리오의 모후	8/9	평화의 모후, 로사리오의 모후
2/15	존경하올 그릇, 매괴의 여왕	8/16	황금궁전, 매괴의 여왕
2/22	중재자의 모후, 모든 성인들의 모후	8/23	기쁨의 샘, 모든 성인들의 모후
3/1	창조주의 모후, 바다의 별	8/30	천상은총의 어머니, 바다의 별
3/8	평화의 모후, 사랑의 샘	9/6	상지의 옥좌, 사랑의 샘
3/15	황금궁전, 사랑하올 어머니	9/13	신비로운 그릇, 사랑하올 어머니
3/22	기쁨의 샘, 섯별	9/20	예언자의 모후, 섯별
3/29	상아탑, 순결하신 모후	9/27	정의의 거울, 순결하신 모후
4/5	상지의 옥좌, 신비로운 장미	10/4	존경하올 그릇, 신비로운 장미
4/12	신비로운 그릇, 애덕의 모후	10/11	중재자의 모후, 애덕의 모후
4/19	예언자의 모후, 온유하신 어머니	10/18	창조주의 모후, 온유하신 어머니
4/26	정의의 거울, 은총의 샘	10/25	평화의 모후, 은총의 샘
5/3	존경하올 그릇, 인내의 샘	11/1	황금궁전, 인내의 샘
5/10	천상은총의 어머니, 인자하신 모후	11/8	기쁨의 샘, 인자하신 모후
5/17	창조주의 모후, 자비의 모후	11/15	상아탑, 자비의 모후
5/24	평화의 모후, 즐거움의 샘	11/22	상지의 옥좌, 즐거움의 샘
5/31	황금궁전, 지극히지혜로우신 어머니	11/29	신비로운 그릇, 지극히지혜로우신 어머니
6/7	기쁨의 샘, 천사들의 모후	12/6	예언자의 모후, 천사들의 모후
6/14	상아탑, 천상의 어머니	12/13	천상은총의 어머니, 천상의 어머니
6/21	상지의 옥좌, 천주의 성모	12/20	존경하올 그릇, 가정의 모후
6/28	신비로운 그릇, 사랑하올 어머니	12/27	중재자의 모후, 정의의 거울

주) 대축일 미사안내는 평의회 간부 및 각 브레시디움 단장이 합니다.